

새한, 땅 팔아 워크아웃 졸업!

보유 부동산 처리 본격화 ... 20만평 경산공장 용지 매각작업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상태인 새한이 최근 경북 경산시에 위치한 공장용지 매각을 추진하는 등 보유 부동산 처리에 본격 나섰다.

관련업계와 채권단에 따르면, 새한은 20만평 규모 경산 공장용지 개발을 통해 워크아웃을 조기 졸업한다는 자구계획안을 마련하고 2005년까지 공장용지 매각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우선 1단계로 7800여평 규모의 사택용지를 처리하기로 하고 최근 상하수도과 도로시설 등 인프라스트럭처를 갖추는 등 매각작업에 착수했다.

새한 관계자는 “사택용지 매입을 희망하는 기업에서 최근 투자제안서를 받아 현재 검토하고 있다”며 “이르면 6월 안에 매각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2004년에는 나머지 농장과 육영시설관 등 관련용지 매각작업을 끝마치게 된다”며 “몇몇 중견 건설기업들이 매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새한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공세리에 위치한 15만8000평 복합단지용 부동산을 963억원에 매각한 바 있다.

최근 4개 기업에서 공세리 복합단지에 대한 투자의향서를 받아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부동산개발 전문기업 <주빌로 디벨로프먼트>를 투자자로 결정했다.

<Chemical Journal 2003/06/23>